

향긋한 경북의 봄, 온 가족 여행에 '딱'

의성 산수유·울진 매화·경주 벚꽃 등 봄꽃 소식 '풍성'
평년보다 기온 높아 개화 3-7일 빠를 것으로 전망

기상청과 민간기상업체 케이웨더는 올해 봄 날씨(3월-5월) 평년보다 비슷하거나 높으며 봄꽃은 평년(1991년-2020년) 평균과 비교해 3-7일 정도 빠르게 핀다고 전망했다.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로 넓은 경북도는 해마다 봄의 시작부터 그 끝 자락까지 주민들과 관광객들에게 다양한 봄꽃의 아름다움과 다양한 추억을 선물한다. 꽤 오래 이어진 겨울 장마로 움츠러진 어깨를 펴고 경북도의 봄으로 여행으로 떠나보자. 경북에서 가장 빨리 봄을 알리는 꽃 소식은 지난해 12월 31일 국립공원으로 승격된 팔공산 가산산성에서 들려온다.

칠곡군 가산산성 부근에 세계 최대의 군락지를 이루고 있는 '복과 장수'의 상징 복수초는 눈 덮인 1월부터 조금씩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해 3월이면 가산산성 동문부터 가산 바위까지 샛노란 꽃밭을 이뤄 팔공산을 찾는 등산객들에게 그 이름 그대로 '복과 장수'의 기운을 선물한다. 복수초가 팔공산을 찾는 사람에게 주는 봄의 전령 같은 꽃이라면 경북도 마미 중에 봄 꽃 향기에 제일 먼저

대원원 들담길 및 쪽샘지구, 보문호 주변으로 펼쳐진 벚꽃을 보기 위해서 찾은 사람들로 4월이면 경주는 인산인해를 이룬다. 가벼워진 옷차림과 환한 미소를 방문객들에게 선물하는 경주의 벚꽃은 이미 3회를 맞는 '경주벚꽃마라톤' 대회만큼이나 전국민들에게 오랜 기간 봄에 꼭 가봐야 하는 여행코스로 벌써 자리매김 해 있다. 경주에서 준비 중인 '2025년 APEC 정상회의'가 유치될 경우 벚꽃 가득한 경주의 봄 여행이 프랑스 '라벤더 투어', 네덜란드 '큐켄호프 튜립축제'처럼 세계적 관광 상품이 될 것이라 희망한다. '호랑이 숲'으로 유명한 봉화 국립백두대간 수목원은 아시아 최대 규모 수목원으로 다양한 종류의 산림생물자원과 다채로운 식물을 볼 수 있는 잘 가꾸어진 아름다운 정원이다. 특히 4월 말에는 약 5만송이의 튜립과 수선화가 개화해 절경을 이룰 예정이다. 봄의 여왕 튜립과 아시아 고산지역 희귀식물을 볼 수 있는 봉화 '국립백두대간 수목원'도 있다. 또한 늦여름 5월이면 영주 소백산 봉우리와 능선에 철쭉군락이 장관을 이룬다. 특히 5월 소백산 산행은 철쭉꽃의

즐거움과 등산의 건강함을 함께 얻을 수 있는 봄의 마지막 선물이다. 영주시는 지난 2006년부터 소백산 철쭉 복원과 보존을 위해 철쭉군락지 및 주요 관광명소 부근 복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어 시간이 지날수록 늦봄 소백산 곳곳에 흐드러진 철쭉의 향연은 그 태세를 더욱 밝힐 것으로 기대된다. 의성 산수유 마을은 지난 2006년 '제1회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자연경연 대회'에서 대상을 차지하고 2008년부터 주민들이 마을에 퍼져있던 산수유 꽃을 다듬고 가꾸 축제를 마련했다. 울진 매화면 매화와 영주 소백산 철쭉은 꾸준한 식재와 가꾸기 사업으로 지역 명소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으며 백두대간 수목원은 백두대간 생태환경 연구를 위해 2018년 개장하고 인공조성 수목원이다. 해마다 봄이면 수많은 인파가 찾는 벚꽃의 명소 경주 보문호도 박정희 대통령의 의지로 1970년대에 조성된 인공호수이다. 경북을 뒤덮은 봄꽃 한 송이, 한 송이마다 사람의 의지와 손이 닿지 않은 곳이 없다. 이번 봄 아름다운 봄꽃을 찾아 경북으로 떠나보자. 그리고 따뜻한 경북 사람 향기에 취해보자. 박외영기자p04140@naver.com



이색 달마도
지난 13일 서예가 김동욱씨가 포항시 북구 흥해읍 초곡마을에 있는 대한불교 달마종 총본산 달마사 종정 법은 스님에게 이색 달마도와 불림문자 8점을 중정하고 있다. (사진=서예가 김동욱씨 제공)

'男가임력' 집에서 쉽게!... 자가정자진단 무료 배포

대구시, 선착순 4000대 제공
지역 기업 혁신 첨단기술로
진단 부담↓ 저출생 해결 '힘'

제품 시범사용 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전액 국비가 지원돼 대구시민에게 무료로 제공된다. '혁신제품 시범사용 사업'은 연구개발 과제로 개발한 제품들 가운데 혁신성이 인정된 제품을 조달청이 지정, 구매하고 공공기관 등 수요기관이 사용한 후 테스트 성과를 토대로 상용화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 사업에 선정된 ㈜인트인의 정자분석기 '오부엠프로'는 2021년 혁신제품으로 지정된 제품이다. 또한 세계 최대 IT 전시회인 CES에서 '남성 가임력 보존을 위한 정자분석기-인간안보'를 지원하는 제품'으로 올해 혁신상을 수상함으로써 기술력

과 국내외적으로 인정받고 있다. ㈜인트인은 지난 2016년 대구경북첨단의료복합단지에 입주해 2년간 디지털 의료기기 분야의 제품 고도화 및 신속 제품화 기술지원을 하는 '지역주력산업 육성지원사업'을 통해 본격적으로 정자분석기 개발과 사업화에 뛰어들었다. 스마트 정자분석기는 최근 남성의 난임 진단 수요가 지속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병원 방문을 꺼리는 현상에서 착안해 집에서 스스로 정자 활동을 간이측정해 건강 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개발된 체외 진단 의료기기다. 사용자는 난임 질환을 조기 발견해 빠르게 대처

하고 기업에서는 참여자의 제품 만족도 조사 결과를 향후 제품 완성도를 높이는 데 활용할 예정이다. 대구에 거주하는 남성이라면 누구나 단지 참여할 수 있으며 가까운 보건소를 방문해 신청하면 스마트 정자분석기를 자택으로 배송받을 수 있다. 송기찬 대구시 청년여성교육국장 은 "이번 지역 혁신 제품 사용을 통해 남성 가임력 검사의 문턱을 낮춰 아이를 희망하는 부부가 건강한 임신·출산을 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양하고 실질적인 정책으로 저출생 극복을 위해 강동용기자kwondrumkakao@daum.net

이철우 지사, 소통·공감하는 조직문화 조성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14일 '3월 직원 만남의 날 소통·공감·재미 라이브 쇼'를 열고 직원 700명과 함께 직장 내 일어나는 다양한 에피소드를 풍자한 개그를 관람했다. 이날 행사는 도민과 함께 '이심전심' 소통·공감하는 풍부한 감수성을 갖고 대민서비스의 질을 높여가는 도정 메시지 전달과 저출생과의 전쟁, 민간투자 활성화 등 당면 현안에 연일 매진하는 직원들을 위로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앞서 이 지사는 국가무형문화재 제16호 거문고 산조 이수자이자 탁음금연구 보존회와 정음가악회 대표인 김지성 명인을 초청해 국악 '탁음금' 거문고 공연을 직원들과 함께 들으며 음악의 건문을 넓혔다. 이 지사는 "오늘처럼 자유롭고 즐거운 분위기에 변화와 혁신의 에너지가 나온다. 직원들의 변화가 도민의 행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소통·혁신해 나가자"고 말했다. 박외영기자p04140@naver.com

경상투데이 10주년

고준위 방폐물 특별법

꼭 필요합니다

안전한 고준위 방폐물 관리
우리 세대가 해결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원자력 발전소에 보관 중인 고준위 방폐물은
고준위 방폐장에 모아서 안전하게 관리합니다

고준위 방폐장 부지 선정
특별법 제정이 시작입니다

고준위 방폐물 관리 특별법은
국민과의 약속입니다

한국원자력환경공단



고준위 방폐장 개념도

경북의회 선진화·지방의회 위상 강화 '실현'

도 차지법규선진화연구회 보고회
광역 의회 17곳 상호 비교 분석
인사권 독립 전문성 확보안 제시
타 시군 사례 도입 등 반영 추진

경북도의회 차지법규 선진화 연구회는 지난 12일 도의회 다목적실에서 '경북도의회 선진화를 위한 차지법규 개선 및 정비 방안 연구 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는 박규탁 대표의원을 비롯한 백순창, 연규식, 이동업, 정경민, 최덕규, 최병근, 최병준 등 8명의 의원이 '경북도의회 차지법규 선진화 연구회'를 구성하고 지난 2020년 개정한 '지방자치법'의 지방의회 역량강화와 책임성·투명성 취지에 적합한 '지방의회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모델'을 구축하기 위해 추진됐다.

연구용역의 책임을 맡은 이준호 동국대학교 교수는 지방의회 차지법규에 관한 이론적 배경을 토대로 17개 광역의회 차지법규를 상호 비교·분석했다. 이에 국회-지방의회 관련 법규체계



의 특성을 분석해 지방의회의 위상강화를 실현할 수 있는 경북도의회 선진화를 위한 7가지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이날 보고회에 참석한 이동업 의원은 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른 조직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개방형 직위에 대한 인력 확대와 인사교류

등을 통해 원활한 활용을 모색할 수 있도록 추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박규탁 대표의원은 앞으로 지방시대를 선도하기 위해 지방의회부터 체계화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이번 연구용역을 계기로 도의회가 독립적 위상을

제고하고 운영의 자율성을 확보해 의회 본연의 역할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제시된 개선방안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통해 조례 제·개정 등 타 시·도 사례 등도 반영해 의정활동에 적극 활용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박외영 기자p04140@naver.com

대한민국 지방의정 봉사상



국민 소리 경청, 신뢰 받는 의회 만들자

김상희 봉화군의회 의장

김상희 봉화군의회 의장이 지난 12일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에서 주관하는 제257차 시도대표회의에서 지방의정 봉사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대한민국 지방의정 봉사상은 전국 기초회의원 중에서 의욕적인 지방의정 활동을 통해 지역발전과 주민을 위해 헌신 봉사하는 의원에게 수여되는 상이다.

김상희 의장은 헌신적으로 봉사하며 리더십을 인정받아 수상하게 됐다.

김 의장은 활발한 입법 활동과 더불어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대변하는 데 앞장서 왔다.

특히 지역사회와의 소통을 강화

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제안하며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 노력해왔다.

김상희 의장은 "이번 수상은 개인의 영광이기보다는 봉화군민 모두의 성원과 응원 덕분이라 생각한다"라며 "앞으로도 국민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신뢰받는 의회가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봉화군의회를 이끌어 국민 중심의 의정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갈 계획"이라면서 "군민의 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한 정책 개발에 더욱 힘쓰며 투명하고 열린 의회 운영을 통해 군민과의 신뢰를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라고 덧붙였다.

정휘영 기자jh430@hanmail.net



현장·법리 관점으로 보는 '월성1호기 해체 관련 위법성'

위법성 검토 국회토론회 개최

각계 전문가, 문제·대응안 모색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이 추진하는 월성1호기 해체에 대한 위법성을 검토하는 국회토론회가 14일 국회의원과 제5당담회실에서 개최됐다.

이날 토론회는 국민의힘 김영식 국회의원 주최, 원자력정책연대 주관으로 진행됐다.

20대 국회에서 월성1호기를 이슈화했던 장석춘 전 국회의원은 축사겸 시국총평을 통해 "지난 정부의 탈원전 불법의 상치인 월성1호기가 여전히 재판 등으로 미궁에 있다는 것은 국가적 손실"이라 지적하고 대통령실과 여당의 관심을 촉구했다.

또 김석기 국회의원은 축사를 통해 "월성1호기의 운명은 경주시민의 뜻과 의지에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첫 발제는 월성1호기를 설비개선 할 무렵 전제사업을 지휘했던 박기철 한수원 전 부사장이 '수조원 국가자산 월성1호기 해체추진 중단 촉구'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두 번째 발제는 황재훈 변호사(로고스)가 '월성1호기 계속운전과 해체에 대한 법리'라는 주제로 법리적 관점에서 월성1호기 해체가 불법인 이유를 이해하기 쉽게 발표했다.

토론에는 신광조 전 광주시청 환경

생태국장과 강정면 변호사(도현), 장태휘 전 월성발전소장, 강창호 원자력기술사, 월성원전 지역주민이 참석해 월성1호기 해체를 바라보는 각 분야의 입장을 토론회로 이어갔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이제까지 제대로 관리되지 못하고 있는 월성1호기의 현실과 구조적 문제점을 살피고 국민의 에너지 기본권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대응 방안을 모색했다.

박삼진 기자wba112@daum.net

거동 불편 선거인 세심하게 챙긴다

봉화선관위, 차량 지원 제도 운영
투표소 왕복구간 교통·편의 제공

봉화군선거관리위원회가 오는 4월 10일 실시되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 투표권을 행사하는 장애인, 어르신, 임신부 등 거동이 불편한 선거인의 교통 편의를 제공한다.

거동불편 선거인 투표편의 지원제도는 투표 당일 투표소까지 왕복구간 이

동 교통편의 및 투표권 행사에 필요한 각종 편의를 제공하는 제도다.

경북도지체장애인협회 봉화군지회(054-673-2744)와 경북시각장애인연합회 봉화군지회(054-672-7929), 한국교통장애인협회 봉화군지회(054-672-1780), 한국농어인협회경북도협회 봉화군지회(054-674-3611)에 전화로 신청하면 탑승할 차량(휠체어 탑재 가능)과 활동보조인을 지원받을 수 있다.

정휘영 기자jh430@hanmail.net

대구 총선 선거권자 개표참관인 공모

16~20일 누리집·서면 신청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 개표 상황을 참관할 개표참관인을 16일부터 오는 20일까지 공개 모집한다.

개표참관인은 개표소 안에서 개표상황을 언제든지 순회·감시 또는 촬영할 수 있고 개표에 관한 위법사항을 발견한 때에는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개표참관인이 되려는 사람은 중앙선

관위 홈페이지(nec.go.kr)에서 신청서를 작성하거나 주소지 관할 구·군선거관위를 방문해 서면으로 신청하면 된다.

이번에 공개 모집하는 개표참관인은 대구 지역 내 개표소별 정당 또는 후보자가 신고하는 개표참관인 수의 20% 이내에서 추첨을 통해 총 75명이 추가로 선정되며 9개 개표소에서 참관하게 된다.

강두용 기자kwondrumkakao@daum.net

초심으로 현장 중심 적극 의정 펼칠 것

안창수 상주시의회 의원

안창수 상주시의회 의원은 지난 12일 개최된 제257차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시도대표회의에서 지방의정 봉사상을 수상했다.

안 의원은 5선 의원으로 오랜 의정 활동을 통해 얻은 다양한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시민의 숙원 해결과 상주시의 발전에 앞장섰으며 집행

부에 대한 견제와 균형을 통해 지역 사회 발전을 위한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는데 힘써온 공로를 인정받아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안창수 의원은 "오랜 의정 활동을 했지만 초심을 잃지 않고 낮은 자세로 시민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현장 중심의 의정 활동을 이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임창완 기자changwan12@naver.com

한국원자력환경공단

방폐물의 안전한 관리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의 약속입니다

방사성폐기물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로
국민생활의 안전과 환경보전에 이바지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이 되겠습니다

경북, 내년도 SOC 국비 확보 위해 '머리 맞대' 道 개발 '벼 신품종 삼총사' 지역 농가 보급

16개 시·군에 다솜쌀·다울·구름찰 11.1t... 수출 경쟁력 기여

도·시군 현안·대책회의 개최 도로·철도 관련 국비안 논의 사후·장기 전략 마련에 '박차'

경북도는 내년도 정부예산 단계별 편성 절차 시기에 맞춰 도에서 건의한 각종 사업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일찌감치 준비한다.

이를 위해 도는 지난 13일 도청에서 오는 2025년 국가지원 사회간접자본(SOC) 국비확보 및 2024년 주요 현안 공유와 협력 모색을 위한 도·시·군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국가지원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국비확보 및 주요현안에 대한 설명에 이어 시·군별 건의 및 토론의 순서로 진행됐다.

이번 회의에서는 문경-김천 철도, 대구 도시철도 1호선 하양-금호 연장 및 영일만 횡단구간 고속도로 등 77개 도로·철도사업 2조5222억원의 국비확



보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국비 확보와 관련한 기법 등을 서로 전하며 내년도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아울러 향후 신규사업 발굴 및 도로 노선승격 등을 통해 국비확보를 할 수 있는 장기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논의도 추진했다. 국토부는 올해 장기적 관점에서 도로 기능 변화 등을 고려한 도로 등급 조

정 등 노선 지정 및 변경을 할 계획이다. 또한 내년에는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 5개년 계획(2026-2030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2026-2035)이 확정 예정이므로 경북도는 각 시·군과 연계해 후부 사업의 국가계획 반영을 위한 발 빠른 논의를 이어갔다. 이 자리에서 상호 정보교류 및 공동 대응 등 실행력 제고를 위한 참석자 간

다양한 의견이 오갔다. 배용수 건설도시국장은 "2024년 국비 예산으로 2조4516억원을 확보한 것은 도와 시·군이 각자 최선을 다해 준 결과"라며 "올해도 도와 시·군이 중앙부처와 국회를 방문해 설득하며 발로 뛰는 행정으로 국비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주문했다. 박외영 기자p04140@naver.com

경북도농업기술원은 경북도가 개발한 '다솜쌀', '다울', '구름찰' 총자 11.1t(222ha 재배 분량)을 14일과 15일 이틀간 도내 16개 시·군 농업기술센터를 통해 농가에 보급한다. '다솜쌀'은 포항시, 경주시, 청도군 등 10개 시·군에 10t, '다울'과 찰벼 '구름찰'은 경주시 등 11개 시·군에 1.1t 각각 보급했다. 지난 2018년 품종 등록한 '다솜쌀'은 수량성이 우수하고 단백질 함량이 낮으면서 완전미 비율이 높은 품종으로 농가, 소비자, 도정업자 모두에게 호평받고 있으며 포항지역 수출할 재배단지, 청도지역 친환경쌀 재배단지에서 브랜드쌀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특히 이 두 지역에서 생산된 '다솜

쌀'은 현재까지 두바이와 캐나다에 160여 t 수출됐으며 포항지역 '다솜쌀'은 두바이에 정기적으로 수출된다. '다울'과 '구름찰'은 지난 2022년 육성세대 품종 등록을 위해 재배심사 중인 신품종으로 지난해에 이어 경북지역 농가에 시범 보급됐다. '다울'은 기존 조생종인 '조평'보다 6일 정도 출수가 빠른 품종으로 이른 햅쌀 생산이나 양파, 마늘 등의 후작에 적합하며 '구름찰'은 알 크기가 일반 찰쌀보다 30% 정도 더 크고 향기가 나는 중생종 찰벼이다. 또 이날 기술원에서 지난해 증식한 '미소진미'를 비롯한 벼 우량종자 15.9t도 함께 보급해 경북지역 고품질 쌀 생산에 일조할 것으로 기대된다. 박외영 기자p04140@naver.com

'경북형 질문·탐구 수업'으로 500년 학문 전통 잇는다

교육청, 학교 공리 수업 활성화 미래 인재 육성·교육 향상 도모

경북교육청은 14일 '학생이 주체가 되는 수업, 깊이 있는 학습 일어나는 수업 실현'이라는 비전으로 2024학년도 도내 전 중·고등학교에서 경북형 중등 질문·탐구 수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경북형 중등 질문·탐구 수업은 질문 표현은 물론 질문 이후의 탐구와 몰입을 통해 기존 지식을 학생 자신의 앗과 생각으로 탄탄하게 만들어 가는 수업을 말한다. 일명 '생각을 다지는 수업, 아하! 공리' 수업으로 학생이 주체가 돼 사물을 깊이 연구해 정확한 지식을 얻는 학습이 이뤄지는 모든 수업을 일컫는다. 중등 질문·탐구 수업은 교사들이 작성하는 질문·탐구 수업과 평가의 계획

에서부터 시작된다. 먼저 무엇을 배우게 할지를 결정하고 학생이 질문을 스스로 품게 하는 수업 방법과 단순 암기를 넘어 학생이 생각을 다지도록 하는 평가 방법을 계획한다. 이것이 각각 '배움', '질문', '생각'이다. 이 요소들은 공부의 과정을 탐구 '박학(博學)', 심문(審問), 신사(慎思), 명변(明辯)'와 실행 '독행(篤行)' 박학(博學): 널리 배우는 것, 심문(審問): 정밀하게 질문에 보는 것, 신사(慎思): 꼼꼼히 생각해 보는 것, 명변(明辯): 앗을 명확히 표현하는 것, 독행(篤行): 앗을 실천하는 것의 순환이라 본 중용 20장과 관련된다. 경북교육청은 단위 학교의 공리 수업 활성화를 위해 학부모 초청 질문·탐구 수업 공개와 학교 특색 질문·탐구 프로그램 등을 운영할 계획이다.



오는 8월 고등학생 질문·탐구 공리 한마당, 12월 중학생 질문·탐구 궁금한 마당이 개최된다. 임종식 교육감은 "경북 지역은 퇴계 이황을 필두로 한 500년 전통의 학문의

본산이다"라며 "선비의 공부하는 자세를 잇는 질문·탐구 수업을 통해 학교 교육력을 향상하고 미래 인재 육성을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박외영 기자p04140@naver.com

교육청, AI 통합플랫폼 구축 우수사례 발표

네이버클라우드 세미나 참여 '인공지능 학·지·종' 큰 호평

경북교육청은 14일 경기도 성남시에 있는 네이버 제2 사옥(NAVER 1784)에서 열린 네이버클라우드 AI 세미나를 통해 전국 시도교육청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인공지능 통합플랫폼 학교지원종합자료실' 구축 우수사례를 발표했다. 이번 세미나는 각 교육청의 AI 활용 정책혁신, 행정업무 경감 추진, AI 디지털교과서, 미래학교 디지털 교육사업, 하이퍼클로바X 기반 AI 솔루션 등 다양한 교육 발전 방안에 대해 함께 토론하는 자리로 네이버클라우드 ㈜클라비 공동주관에서 마련됐다. 경북교육청은 지난해 11월 전국 공공기관 최초 생성형 AI를 도입해 '인

공지능 통합플랫폼 학교지원종합자료실' (이하 인공지능 학·지·종)을 구축한 교육기관으로서 이번 세미나에서 우수사례를 발표했다. 인공지능 학·지·종은 이용자 수가 5만을 돌파하는 등 구축 이후 꾸준한 호응을 얻고 있다. 특히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한 경북 체험맞춤 365 프로그램을 탑재해 사용자의 선택에 따라 지역과 테마별 코스를 제공하는 등 학생들의 다양한 체험 학습을 지원함으로써 학교로부터 큰 호평을 받고 있다. 또 경북교육청은 인공지능 학·지·종 외에도 '인공지능(AI) 활용 실험실'에서 학교 현장 지원을 위한 교수 학습과 업무용 웹 20종을 개발해 보급하는 등 선생님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다. 박외영 기자p04140@naver.com

교육청, 엄마품 돌봄유치원 267곳 확대 운영

경북교육청은 14일 맞벌이 가정의 육아 부담을 완화하고 아이가 행복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달부터 돌봄유치원을 267곳으로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엄마품 돌봄유치원은 저소득층, 맞벌이 부모, 돌봄이 꼭 필요

한 유아를 대상으로 교육과정과 방과 후 과정(1일 8시간) 외 야간, 저녁 돌봄을 지원해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엄마품 돌봄유치원은 가정과 같은 편안함과 정서적 안전감을 제공하기

위해 자유 놀이, 신체활동, 미술 활동, 휴식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특히 개별 유치원 여건과 학부모의 요구 등을 최대한 반영해 가능한 연중무휴 운영을 통해 돌봄이 꼭 필요한 유아의 돌봄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촘촘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2024학년도에는 17곳의 희망유치원을 추가로 지정해 267개원에 총 28억

6000만원의 운영비를 지원한다. 임종식 교육감은 "저출산 극복과 보호자의 육아 부담 경감을 위해 엄마품 돌봄유치원을 계속해서 확대 운영하고 정기적인 모니터링과 질 높은 돌봄 서비스로 부모가 안심하고 아이가 행복한 돌봄 서비스 제공을 위해 행·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박외영 기자p04140@naver.com

대형마트 다소비음료 대상 인공감미료 사용실태 조사

경북도보건환경연구원은 오는 10월까지 도내 대형마트에서 유통 중인 다소비 음료를 대상으로 인공감미료 함량 실태를 조사한다. 도내 대형마트를 중심으로 판매 중인 탄산음료, 과채음료, 혼합음료 등 다소비 음료류 100건을 자체 수거해 인공감미료 5종(사카린나트륨, 아세설팜칼륨, 아스파탐, 수크랄로스, 네오탐)의 함량을 분석한다. 인공감미료는 식품에 단맛을 부여하는 식품첨가물로서 국내에서 사용 허가된 인공감미료는 모두 22종이며 식품유형에 따라 식품첨가물공전에 사용기준을 정해 관리하고 있으나 아스파탐을 비롯한 일부 인공감미료는 음료류에 대한 사용기준이 설정돼 있지 않다. 따라서 이번 조사로 음료류의 인공감미료 함량을 파악하고 사용기준에 따른 적량 여부를 확인해 소비자에게 인공감미료 사용실태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한다. 박외영 기자p04140@naver.com

안동시 산림조합

상호금융 (예금 · 적금 최고 금리, 부동산 · 임야 담보 대출)
 임업기술지도 · 산림대리경영 · 임업기계면세유공급 · 버섯종균알선
 산림경영계획작성 · 나무시장 · 송이공판 · 묘지관리대행 · 산림조합상조

정기예탁금 신규 예치시 안동관내 최대이자 제공!

나무시장 개장 : 2024.2.27~4월 중순(오전9시~오후4시까지)
 (안동시 운동장길 178)유실수, 조경수 등 약 150종, 전시 및 판매

2023년도분 출자배당 6.0% 산주여러분! 조합원으로 모십니다.

10

경상투데이 10주년

예금, 대출, 신용카드 상담
TEL (054) 857-1181

조합원가입, 임업기술지도 상담
TEL (054) 858-4621

http://andong.nfcf.or.kr
 경북 안동시 퇴계로 97

경주 빛꽃 버스 '2025 APEC 경주 유치 염원' 신고 힘차게 달린다

시, 정부 공모신청 절차 앞두고 분홍빛 풀 랩핑 홍보 버스 운영 대국민 공감대 확산 활동 박차

경주시가 2025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의 경주 유치 염원을 담은 특별한 시내버스를 운영해 눈길을 끌고 있다. 14일 경주시에 따르면 다가올 정부의 공모신청 절차를 앞두고 정상회의의 경주 유치 열기와 공감대를 더욱 확산하고자 분홍빛 시즌을 연상시키는 분홍

빛으로 랩핑된 시내버스 3대를 특별히 제작해 운영에 돌입했다. 경주역과 시내일원을 순환하는 노선에 투입되는 이번 홍보버스는 '2025 APEC 경주, 완벽한 경주해'를 슬로건으로 APEC 정상회의를 향한 완벽한 경주를 펼치겠다는 성공 개최의 의지를 담아 유치 열기를 실어나르며 홍보 활동을 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오는 22일부터 열리는 '경주 대릉원 돌담길 빛꽃축제'와 다음달 6일 보문단지 일원에서 펼쳐지는 '경주빛꽃마라톤대회' 등 본격적인 빛꽃 시즌을 맞아 곳곳에 어울리는 밝고

따뜻한 느낌의 홍보 버스를 디자인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지난해 지역 유일의 시내버스 운영사인 ㈜새천년미소 노사대표자들과 '2025 APEC 정상회의 경주 유치 홍보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후부터 APEC 유치 도전을 시작과 시민의 의지를 표명한 '경주시작', '지금 경주는 APEC 중'이라는 슬로건으로 시내버스 외부홍보를 진행하고 있다. 특히 ㈜새천년미소는 업무협약 이후 전체 시내버스 내부에 APEC 홍보 스티커를 부착하고 버스 전면에는 홍보 현수막과 함께 측면에도 2025 APEC 정상회의

의 경주 유치를 함께 응원해 달라는 문구를 새겨 유치전에 힘을 보태고 있다. 주낙영 시장은 "시민과 관광객이 지역 곳곳을 누비는 홍보 버스를 보며 2025 APEC 정상회의의 경주 유치에 대한 관심과 흥미를 가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곧 있을 정부 공모절차에 빈틈없이 준비하는 한편 대국민 공감대 확산을 위한 홍보 활동과 함께 정부와 정치권에 경주 유치의 의미와 당위성을 지속적으로 전달해 반드시 최종 개최도시로 선정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박삼진기자wbaf12@daum.net



신라문화유산연구원, 시민 문화향유권 증대에 '최선'

'경주 인문학 향연' 강좌 개최 26일~11월 12일 총 9회 진행

(제)신라문화유산연구원이 오는 26일 오후 2시 황룡원 대연회장에서 경주 시민을 대상으로 '2024 경주 인문학 향연' 강좌를 개최한다. 이날 첫 강좌를 시작으로 '변화의 시

대, K-culture'를 주제로 오는 11월 12일까지 총 9회에 걸쳐 진행된다. 매회 세계 속 한국문화의 변화를 주도하는 분야별 명사를 초빙해 문화 분야의 탁월한 강의를 선보일 예정이다. 품격있는 강연회를 위해 전통 차자리도 마련하며 첫 강연자로 미술사 분야 세계적 권위자인 김영나 전 국립중앙박물관장이 연단에 선다.

이날 강연은 '세계의 박물관을 가다'를 주제로 세계 유명박물관에 전시·소장된 명품을 중심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미술품을 보는 새로운 시각을 키우며 그 매력을 생생하게 느낄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가 모아진다. 참석을 원할 경우 오는 22일까지 전화(0507-1326-4091) 및 QR링크로 사전

신청을 하면 된다. 선착순 150명까지만 사전접수가 가능하며 당일 현장접수도 일부 인원만 한해 가능하다. 신라문화유산연구원은 "오는 11월까지 이뤄지는 이번 강연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경주시민의 문화향유권 증대를 위한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서경규기자seoul1411@hanmail.net

경주교육청, 학폭대책심의위 전문성 제고

심의위원 48명에게 위촉장 수여 실질적 대응 위한 역량 강화 연수

경주교육지원청은 지난 13일 황룡원 4층 회랑홀에서 2024학년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위원 48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역량 강화 연수를 실시했다. 경주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규정된 것으로 교원, 학부모, 변호사, 경찰관, 청소년 선도 및 보호 전문가들로 구성했다. 심의위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 기획된 이번 연수에서는 하경태 교감(기

계초등학교)의 강의를 통해 학교폭력의 이해, 심의위원회의 이해와 절차, 심의위원회에서 유의점 등을 공유함으로써 현장 적응력을 높였다. 특히 사례를 통한 점수 판단에 대한 안내를 통해 심의위원들이 갖춰야 할 실질적인 대응 역량을 강화했다. 권대훈 교육장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학교폭력 피해학생을 보호하고 가해학생을 교육하고 선도하며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조정 등 학교폭력 사안과 관련해 심의·의결하는 기구로서 심의위원들은 공정하고 일관성이 있는 심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책임감을 가지고 전문성 제고를 위해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서경규기자seoul1411@hanmail.net



경주에(愛) 글로벌 공무원 서포터즈, APEC 성공 개최 일조

국제화 역량강화교육 실시

경주시는 성공적인 '2025 APEC 정상회의' 개최를 위해 14일 경주 더케이 호텔에서 경주에(愛) 글로벌 공무원 서포터즈단원을 대상으로 국제화 역량 강화교육을 실시했다. 앞서 경주시는 APEC 정상회의의 유

치를 위해 외국어 구사 가능한 공무원으로 구성된 '경주에 글로벌 공무원 서포터즈단'을 발족한 바 있다. 이날 교육을 위해 외교부 의견장을 지낸 최종현 전 네덜란드대사가 초빙 강사가 나서 국가정상급 국제행사 의전의 노하우를 전수했다. 이를 통해 서포터즈단원들은 국제행

사나 외빈 수행 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돌발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지식을 얻는 계기가 됐다. 이날 서포터즈단원들은 2025 APEC 정상회의의 경주 유치 영문 문구인 'Gyeongju for APEC'과 슬로건 'We are ready'가 들어간 단체티셔츠를 입고 교육에 임하면서 '2025 APEC

정상회의의 성공 개최'에 대한 굳은 결의를 보여줬다. 이성락 대외소통협력관은 "이번 기회를 통해 그간 궁금했던 국제행사 진행 과정 등을 알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 됐길 바란다"며 "앞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경주에(愛) 글로벌 공무원 서포터즈단원들이 2025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에 일조할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삼진기자wbaf12@daum.net

2주 이상 기침하면 감기 아닌 '결핵' 의심

경주보건소, 65세 이상 어르신 대상 11월까지 찾아가는 결핵검진사업

경주시보건소는 지역 65세 이상 어르신 대상으로 오는 11월까지 '찾아가는 결핵검진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14일 경주시에 따르면 대한결핵협회와 함께 경로당, 주간보호센터 등을 직접 방문해 실시간으로 흉부엑스선 촬영하고 판독한다. 우리나라 결핵신규환자 2명 중 1명은 65세 이상 고령자다. 65세 이상 고령자가 상대적으로 면역력이 약한 이유 때문인데 결핵에 감염되더라도 증상이 잘 나타나지 않는 경우도 있어 결핵검진이 반드시 필요

한 상황이다. 이에 경주시보건소는 '결핵예방의 날(3월 24일)'을 맞아 오는 18일부터 24일까지 결핵예방주간으로 정하고 어르신대상 결핵검진, 결핵예방수칙 홍보 등 지역사회 결핵퇴치 활동을 실시할 방침이다. 보자 자세한 사항은 경주시보건소 결핵실(054-779-8599)로 문의하면 된다. 진병철 보건소장은 "2주 이상 기침, 식은땀 등의 증상이 지속되면 결핵검진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며 "결핵 고위험군인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보건소에서 실시하는 연 1회 무료 결핵 검진을 꼭 받으시길 당부 드린다"고 밝혔다. 서경규기자seoul1411@hanmail.net

Advertisement for the 26th Asia-Oceania Athletics Championships in Gumi, 2025. It features a large image of a runner and text including '글로벌 명품 스포츠 도시로 도약! GUMI', '제26회 아시아육상경기선수권대회 2025년 5월 구미시 개최', and '41만 구미 시민의 염원에 힘입어 2025년 5월, 구미시에서 제26회 아시아육상경기선수권대회가 펼쳐집니다'.

‘앞산터널로’ 자금재조달... 최대 588억 이득

시, 협상 완료·실시협약 체결 징수통행료 동결, 시민 부담↓ 안정적 운영 도모·혜택 UP

대구는 민자도로인 앞산터널로(대구 4차순환도로 상인·범물간) 자금재조달 협상을 완료하고 실시협약을 변경 체결했다. 자금재조달로 발생한 공유이익으로 기준통행료를 인하여 앞산터널 이용 시민들에 징수통행료 인상을 억제하는 등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효과로 제 공되며 또한 시가 부담해야 하는 법적

경비 36억원을 사업시행자가 부담하기로 합의해 오는 2039년까지 최대 588억 원의 혜택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산터널로는 대구남부순환도로 주식회사(이하 사업시행자)가 지난 2007년 12월 공사를 착공해 2013년 4월 준공하고 2013년 6월 15일 개통 후 오는 2039년까지 26년간 운영하도록 대구시와 협약을 체결했다. 개통 이후 추정 교통량 대비 52%의 낮은 통행량으로 사업시행자의 재정 부담이 증가함에 따라 사업시행자는 지난 2021년 9월 낮은 금리로 신규 대출을 재조달하는 자금재조달 계획서를 제출해 올해 2월 말까지 협상 및 내부

승인 절차를 진행했다. 시는 사업시행자와 자금재조달로 발생한 공유이익을 50대 50으로 공유해 기준통행료를 1150원에서 1087원으로 63원 인하하는 내용으로 합의했고 이달 11일 변경 실시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최근 4%대의 급격한 물가 상승으로 2024년도 징수통행료는 1700원에서 1800원으로 인상될 예정이었으나 이번 자금재조달로 인하된 기준통행료 적용 시 1700원으로 동결돼 통행료 인상 시기가 늦춰질 전망이다. 이로 인해 앞산터널로 운영 기간인 오는 2039년까지 약 287-552억원, 해마다 약 18-34억원의 통행료 감면 혜택을

시민들이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실시협약상 법령 개정(자선 재 기부사성능 및 건축물 내진기준 강화)에 따른 운영비 증가분 약 36억원은 시 재정지원 대상이나 사업시행자가 부담하기로 합의해 시 예산을 절감했다. 홍준표 시장은 “이번 자금재조달 협상을 통해 앞산터널로의 안정적인 운영 도모와 통행료 인하로 시민들의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며 “앞으로 금리 인하 등 금융환경의 변화가 발생하는 경우 적극적으로 자금재조달을 추진해서 시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강두용기자kwondrumkakao@daum.net



대구보건대, 글로벌 보건인재 양성 ‘힘 모아’

계명대 동산의료원과 MOU 체결 공동연구·학술교류 등 협력 약속

대구보건대학교가 지난 12일 계명대학교 동산의료원과 글로벌 보건인재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양 기관이 상호교류 협력을 통해 우수한 글로벌 보건인재를 양성하고 함께 성장하는 협력적 거버넌스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협약식은 계명대학교 동산의료원에서 진행됐으며 남성희 총장, 조지흠 원장 등 대학과 병원 관계자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양 기관은 협약을 통해 △글로벌 보

건인재 양성 기반 교육을 위한 상호협력 △글로벌 보건인재 양성 관련 공동연구·정보교환·학술교류 △동반성장 생태계 조성을 위한 글로벌 보건인재 양성 협력 체계 구축·운영 △학생들의 현장실습교육과 취업정보 제공 등 상생발전을 위한 협력을 약속했다. 남성희 총장은 “이번 계명대학교 동산의료원과 업무협약이 지역사회 보건인재로 수준 향상과 나아가 세계적 수준의 보건인재 양성교육의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협약을 기점으로 양 기관이 사회가 필요로 하는 글로벌 보건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학생들의 현장실습교육과 공동 연구 등 활발한 교류를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강두용기자kwondrumkakao@daum.net

대구시, 지역 소상공인의 온라인 판로개척 돕는다

무빙픽처스 운영, 홍보물 제작 프로필·매장 사진 등 촬영 지원 SNS 상위노출 컨설팅 등 제공

대구시는 지역 소상공인의 온라인 판로지원 전문기관인 ‘소담스퀘어 대구’를 통해 소상공인의 디지털 전환을 적극 지원하고 있으며 이달부터는 온라인 홍보콘텐츠를 제작하는 ‘무빙픽처스’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무빙픽처스’는 사진촬영 및 마케팅 전문가 등 3-5명으로 구성된 전담팀이 소상공인 매장을 직접 방문해 소상공인 프로필 사진과 매장·메뉴 사진 및 영상을 촬영해 네이버플레이스에 등록

하고 네이버플레이스·SNS 상위노출을 위한 컨설팅을 제공하는 등 소상공인의 온라인 홍보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소상공인들은 온라인 시장 진출 및 홍보에 필요한 다양한 사진과 영상 콘텐츠를 확보할 수 있으며 콘텐츠 기반의 매장 브랜딩을 강화함으로써 직접적인 매출 증대 효과를 체험할 수 있다. 지난해 무빙픽처스는 ‘신매시장 특집’과 ‘전자관 특집’을 포함해 53개 업체의 오프라인 매장을 온라인에 홍보해 소상공인의 온라인 판매 기반 마련과 소비자 인지도 및 매출 향상을 지원했다. 올해는 지역 소상공인 30명을 지

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특히 결식아동들에게 무료로 음식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영업자 공동체인(사)선한영향력가게와 협약을 맺고 ‘선한영향력가게 특집’을 진행한다. 상·하반기 10개씩 총 20개 업체를 지원할 계획이며 3월 상반기 지원 업체를 모집했고 7월경 하반기 지원 업체를 모집한다. 한편 북구 산격동 대구종합유동단지 관리공단에 위치하고 있는 ‘소담스퀘어 대구’는 소상공인의 디지털 전환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지역 거점 공간으로 소상공인이면 누구나 무료로 대여 및 사용할 수 있는 스튜디오·라이브 커머스 장비 등이 구축돼 있다.

지난해 총 12억원의 예산으로 특색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해 789개 업체의 온라인 판로개척을 지원했으며 그 결과 지역 소상공인에게 큰 호응을 받아 전국 8개 소담스퀘어 중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았다. 올해도 무빙픽처스를 비롯해 동행세일 연계한 현장 라이브커머스, 인플루언서와 연계한 콘텐츠 제작 등 소상공인의 디지털 전환 및 온라인 판로 확대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진할 계획이다. 지원 프로그램 안내 및 스튜디오·장비 사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소담스퀘어 대구 홈페이지(litt.ly/sodam.daegu)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강두용기자kwondrumkakao@daum.net



대구교통공, 16년째 생명 나눔 실천 앞장 노·사·민 합동 ‘헌혈 캠페인’ 임직원들 자발적인 참여 훈훈

대구교통공사는 14일 국가적 혈액 수급 위기 극복을 위해 상인동 본사와 3개 차량기지사업소(월배·문양·칠곡경전철)에서 ‘노·사·민과 함께하는 생명 나눔 헌혈 행사’와 헌혈 참여 캠페인을 진행했다. 해마다 동절기(12월-3월)는 중·고등학교 방학 등으로 단체 헌혈이 감소해 혈액 보유량이 급감하는 시기다. 이에 혈액 수급이 ‘관심’ 단계 코앞까지 다가온 상황에 공사는 임직원들의 자발적인 단체 헌혈 봉사를 지역주



민과 함께 추진했다. 이번 행사를 통해 임직원들이 기부한 헌혈증은 공사 참사랑봉사단을 통해 수혈이 시급한 환자와 사회단체 등에 기부될 예정이다. 공사의 헌혈 봉사 활동은 16년째 이어지고 있으며 지난 15년간 헌혈 참여 920명, 헌혈증 기부 416개로 ‘생명 나

눔’ 실천에 앞장서고 있다. 또한 혈액 수급 위기 상황을 시민들에게 알리고 참여 장려를 위해 대구경북혈액원에서는 헌혈 경험이 있는 상인동 주민 500여명에게 행사 전달 헌혈 참여 문자를 발송했고 행사 당일에는 공사와 혈액원 합동으로 상인역 대합실 및 상인네거리 일대에서 헌혈 참여

캠페인도 진행했다. 김기혁 사장은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넘어 다양한 사회 공헌활동을 함께 추진해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지역 대표 공기업으로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강두용기자kwondrumkakao@daum.net

군위군, 체류형 관광 활성화 아카데미 교육

숙박시설 부족 문제 등 해소

군위군은 지난 13일 체류형 관광 활성화를 위한 창업교육 아카데미 ‘위스데이(we stay)’ 교육생을 대상으로 오리엔테이션을 갖고 실무교육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위스데이’는 지역 내 관광객 이용 숙박시설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체류형 관광상품 개발 기반 조성으로 지역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고 대구경북신공항에 어울리는 관광도시로의 이미지 구축을 위해 군위군에서 올해 처음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이번 아카데미는 총 40여명의 교육생을 선발했으며 군위 관광의 장기 지속적인 확장성을 위해 지역 내 주민 뿐

아니라 타지역 희망자도 교육생으로 선발해 함께 수업을 진행했다. 이날 교육에서는 체류형 고객 유치를 위한 전문가 특강과 군에서 시행하는 빈집자원화 사업 및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연계 방안 안내 등 맞춤형 교육을 실시했다. 위스데이 아카데미는 향후 우수사업장 인사이트 견학, 전문가 초청 강연 및 스테이홈 홈페이지와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군위군을 방문하는 관광객을 위한 체류형 관광 프로그램도 개발,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이날 한 교육생은 “기회가 되면 군위에서 관광과 관련한 창업을 해보고 싶다”고 참여 소감을 밝혔다. 정성수기자power5151@naver.com

살국유사의
눈교장 군위

대구광역시 군위군

파워풀 대구와 함께 미래 100년을 준비하겠습니다!

아름다운 변화 행복한 군위

문경새재, 관광 편익·환경 보존 '두마리 토끼' 안동시, 빈틈 없는 국비확보 전략 밑그림 추진상황 보고회... 신규 37건 포함 총 86건 2207억원 규모

공영주차장 무료화로 정체 해소 차량 통제 등 방문객 안전 사수 차별화된 콘텐트·볼거리 '풍성' 세계적 관광명소로 '자리매김'



문경새재관리사무소가 자연의 보고인 문경새재의 보존과 관광객의 편의 이라는 두 마리의 토끼를 잡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이는 코로나19 당시 100만명 수준까지 떨어졌던 관광객 수가 엔데믹 이후 가파르게 증가해 지난 2022년부터 연간 200만명 이상이 찾아오는 한국의 대표적인 관광지로서의 위상을 되찾으면서 해를 거듭할수록 문경새재를 찾아오는 관광객 수는 급격히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문경새재관리사무소는 문경새재도 지키고 관광객들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다녀갈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

하자는데 방점을 뒀다. 이를 위해 첫째 지난해 10월부터 문경새재과거길 출입 차량을 전면 통제하면서 관광객들의 안전과 쉼을 제공하고 있다. 단 특산물판매장 납품 차량과 공무 및 촬영 차량은 임시 등록 후 출입해야 하며 이 또한 직원들이 철저히 관리 감독한다. 둘째 유료로 운영되던 문경새재 공영주차장을 올해부터 무료로 전환했다. 이로써 요금수납으로 인한 차량정체 해소는 물론 기다림으로 인한 관광객들의 피로와 차량의 배기가스도 줄었다. 또한 갓길주차 등 불법주차 감소로 교통안전에도 큰 도움을 주고 있다. 셋째 요금수납에 투입됐던 인력을 주차 안내에 더 배치하고 쓰레기 무단투기 계도와 친절환 관광 안내를 병행

함으로써 관광객들의 편익과 환경보전에 나선다. 문경새재는 백두대간을 넘나드는 주요 고갯길이며 역사적, 민속적 가치가 있는 우리의 소중한 자산이자 문화재이다. 특히 영남에서 한양을 오가는 길은 옛 선비들이 과거시험을 보러 갈 때마다 반드시 넘어야 하는 과거길로 이들의 애환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곳이다. 또한 계절마다 색다른 수채화를 그려내는 문경새재의 순수한 풍광은 눈을 감고 걸어도 느낄 수 있는 아름다운 곳이며 느낌의 미학이 스며있는 명소이다. 윤상혁 소장은 "문경새재를 찾는 관광객들의 편익과 새재 보존을 위한 일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문경새재만의 독특한 콘텐트를 개발해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고 아울러 세계적인 관광 명소 문경새재를 만들어가겠다"라고 밝혔다. 김세현 기자 hyun0085@daum.net

안동시는 안정적인 국비 확보를 위해 지난 13일 권기창 시장 주재로 '2025년 국·도비 확보 추진상황 보고회'를 가졌다. 이번 보고회는 지난 1월 국가투자사업 발굴 보고회, 2월 농업분야 별도 보고회 이후 추가 사업을 발굴해 전 부서장이 참석한 가운데 안동시 미래 성장동력 기반이 될 사업을 공유하고 추진 상황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지금까지 국·도비 신규사업 37건을 발굴하고 계속사업 49건을 포함해 총 86건 2207억원 규모에 이른다. 안동의 신성장 동력이 될 주요 사업으로는 △산업융합프 글로벌 혁신특구 조성 △천연물소재 전주기 표준화 허브 구축 △대한민국 문화도시 조성 사업 △차세대 농업로봇 디지털융합 제조서비스 기반구축 △스마트 경로당 구축사업 △구담지구 자연재해 위

협개선지구 정비사업 △녹전 매정·원천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 등이 있다. 발굴된 사업은 이달과 오는 4월 경북도의 검토를 거쳐 5월 말까지 중앙부처에 반영해 기재부로 제출된 후 9월부터 국회 심의를 받게 된다. 시는 이번 보고회에서 나온 미비 사항을 보완해 중앙부처 등을 집중 방문하고 총선 후 '예산정책 간담회'를 통해 정치권의 지원도 결집할 계획이다. 권기창 시장은 "올해는 정부의 건전재정 기초 강화에 따라 그 어느 해보다 예산안 반영이 어려워졌다"라며 "역점 현안 사업의 당위성을 피력해 경북도, 중앙부처 등과 사전 공감대를 형성하고 정치권과 협조체계를 구축하는 등 전략적인 예산 확보 활동을 전개해달라"고 주문했다. 오명수 기자 oms727@nate.com

봉화, 암소 사육농가 설사병 예방백신 지원

로타·코로나바이러스 동시 예방 송아지 폐사·성장부진 사전 방지



봉화군이 암소(번식우) 사육농가를 대상으로 송아지 폐사 등 질병예방을 위해 6000만원의 사업비로 송아지 설사병 예방백신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설사병은 송아지 폐사원인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소화기 질병으로 생후 3주 이내에 많이 발생하며 주로 경구감염으로 설사 발병우의 분변으로 전파된다. 증상은 다양한 형태의 설사 증상으로 인한 탈수와 저체온증을 보이면서 식욕감소, 침울, 기립불능, 혼수상태를 나타낸 뒤 폐사에 이르게 되며 한우 농가에서 경제적 손실을 가장 많이 입는 대표적인 질병이다. 송아지는 생후 0-30일령이 설사병에 노출되는 매우 위험한 시기로 귀포 부착 전에 폐사가 일어날 수 있으며 로타,

코로나, 대장균, 살모넬라, BVD가 주로 설사병의 원인으로 알려져 있다. 이번 예방백신 지원사업은 송아지의 설사를 일으키는 소 로타바이러스와 소 코로나바이러스 동시 예방을 목적으로 하며 임신우는 1차로 분만 5-6주 전에, 2차로 분만 2-3주 전에 두 차례 접종하게 된다. 이승호 농정축산과장은 "이번 사업으로 송아지 폐사 및 성장부진을 사전에 방지해 한우농가의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정희영 기자 jhy4430@hanmail.net

청송군, 농번기 앞두고 외국인 계절근로자 유치 성공

라오스 노동사회복지부와 MOU 농가 일손·문화·사회 교류 물꼬



청송군은 지난 13일 라오스 비엔티안에서 라오스 노동사회복지부와 외국인 계절근로자 유치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식에는 이승택 부군수, 아누선 감심사양 라오스 노동사회복지부 고용국장을 비롯한 10여명이 참석해 안정적인 계절근로 인력 도입 및 다양한 분야의 상호 교류와 협조, 지원에 대한 사안을 협의했으며 계절근로자 유치 업무협약 체결로 송출 상대국의 정세 변화에 따른 변수에 대응하고 외국인 계절근로자 수요증가에 대비하는 등 고령화와 인구감소로 농번기 적기

영농에 어려움을 겪는 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이번 방문 기간 중 관계자는 라오스 계절근로자들을 직접 만나 타국에

서의 안전한 근로 생활을 약속하고 근로자들이 농가에 큰 힘이 된다는 사명감으로 성실하게 일해 달라는 당부도 잊지 않았다. 윤경희 군수는 "농촌지역에 해마다 반복되는 일손부족 문제의 대안으로 외국인 계절근로자 업무협약을 통해 체결국을 다양화해 농가 수요에 적극 대응하고 농번기 영농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더불어 이번 협약이 경제, 문화, 사회 등 전반적인 분야에서 교류의 물꼬를 트는 기회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라오스 노동사회복지부와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50명의 근로자가 오는 4월 초 입국해 일손이 부족한 19곳의 농가에서 일하게 될 예정이다. 조영국 기자 wdr121@hanmail.net

영양군, K-U시티 프로젝트 추진 간담회

영양군은 지난 13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관계자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영양군 K-U시티 프로젝트 추진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K-U시티는 University(대학), Unique(지역특화), City for Youth(청년을 위한 도시)를 의미하며 지방

정부가 대학교, 고등학교 및 기업과 협력해 지역의 청년들이 지역 대학을 나와 지역 기업에 취업해 지역에서 정주할 수 있는 도시 조성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는 영양군과 경북도를 비롯해 경북지역산업진흥원, 안동

대학교, 지역 내 고등학교 관계자와 ㈜바이오스타, ㈜시아스, 발효공방 1991, SPC삼립, ㈜젠푸드, ㈜MSC, 허스렐리 등 기업 관계자들이 다수 참석했다. 간담회는 김동기 경북도 지방시대정책과장의 경북도의 K-U시티 프로젝트 설명을 시작으로 김태완 안동대학교 교수의 인력 양성방안 설명, 기업인 간담회와 토론 순으로 이어졌다.

또 지방시대 선도모델인 K-U시티 프로젝트의 완성도 있는 추진을 위한 심도 깊은 논의가 이뤄졌다. 군은 이날 논의된 기업, 교육기관, 경북도 및 영양군의 상호 협력 방안을 바탕으로 식품가공분야를 지역의 주요 전략 사업분야로 선정, 향후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K-U시티 프로젝트를 추진할 예정이다. 김경태 기자 tae6611@naver.com

영농 환경 개선 '착착' 예천 개포면, 새마을자조사업

예천군 개포면행정복지센터는 14일 우감1리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새마을 자조협동사업'을 추진한다. 새마을 자조협동사업은 영농 환경을 개선하고 통행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레미콘, 옹집철망, 거푸집 등 관급자

재를 개포면행정복지센터에서 지원받아 새마을단체 및 마을 주민들이 마을 안길이나 농로와 같은 소규모 포장 공사를 직접 시공하는 것을 말한다. 개포면행정복지센터는 사업추진을 위해 각 마을 이장들의 협조를 받아 대상지를 조사한 후 시급한 곳을 우선 선정했으며 우감1리 등 순차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박외영 기자 po4140@naver.com

준비된 땅 상주!

입지, 교통, 인프라, 탁월한 미래가치까지 상주시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군사수도 건설을 위한 모든 것이 준비된 군사시설 최적지입니다.

대한민국이 주목하는 군사시설 최적지 상주!

- 최적의 입지와 교통**
국도 중심부에 위치하여 전국 2시간 이내의 접근성, 중부내륙철도 개통(예정)으로 더 빨라진 KTX역세권
- 원스톱 지원과 풍부한 인프라**
이전사업 TF팀의 원스톱 지원과 교육, 의료, 관광, 문화, 일자리까지 부족함 없이 누리는 민군상생협력타운 건설
- 군사훈련 최적지**
너른 평지와 저렴한 공시지가, 다양한 지형을 조화롭게 갖춰 전문적인 훈련 최적의 입지조건을 갖춘 부지
- 결집된 유치 의지**
'범시민 유치 추진위원회'를 중심으로 상주시민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군사시설 이전 유치 홍보활동 전개

상주시 SANGJU CITY



군민과 함께 만드는 '산불 제로 안전 고령'

군, 식목일·나무심기 기간 맞아
헛개·대봉감나무 3000그루 나눠

고령군은 제79회 식목일과 봄철 나무심기 기간을 맞아 14일 대가야읍 모산골 공영주차장에서 반려나무 나눠주기 행사를 실시했다. 이번 행사는 군민과 함께 나무심기 분위기를 조성하고 산림의 가치와 소중함을 널리 알리고자 마련됐으며 헛개나무 1500본과 대봉감나무 1500본을 1인당 2본(헛개나무, 대봉감나무 각 1본)씩 모두 3000그루를 나눠줬다. 또한 봄철 산불조심기간을 맞아 산불 예방 홍보 팸플릿을 나눠주며 군민들이 스스로 산불 예방에 동참해줄 것을 당부하는 산불 예방 캠페인을 동시에 실시했다.

고령군은 해마다 3월 봄철 나무심기 기간 동안 반려나무 나눠주기 행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군민 누구나 손쉽게 나무를 심고 가꾸는 환경을 만들고 산림의 중요성과 기후변화에 대응한 저탄소 녹색성장의 필요성을 홍보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아울러 고령군산림조합에서는 봄철 나무심기 기간을 맞아 지난달 23일부터 이달 31일까지 나무전시·판매장을 개설하고 관상수, 특용수 등 60여종을 전시·판매한다. 이날 행사에는 "이번 행사를 통해 산림의 공익적 가치를 이해하고 행복하고 건강한 숲을 가꾸는 데 군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바라며 탄소흡수원으로서 나무의 가치를 되새기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김일호 기자hoya1515@daum.net



김천 감천면, 영농부산물 화재 차단 '총력'

수거·파쇄 지원, 불법 소각 방지

김천시 감천면은 지난 5일부터 산림 인접 고령층, 여성 농업인 등 농업 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경지 경작자를 대상으로 영농부산물 수거와 파쇄 지원을 통해 소각산불 사전 차단에 행정력을 집중한다. 이번 영농부산물 파쇄 주간 운영은 산불 발생원인 중 대부분이 산림 인접 영농부산물 불법 소각 등 부주의로 발생함에 따라 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방안으로 운영된다. 또한 농가주, 산불감시원, 의용소방대와 함께 농업 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령층, 여성 농업인 등을 대상으

로 산림 인접 농경지 3.5ha에서 발생하는 영농부산물 수거와 파쇄를 지원할 예정이다. 이상진 면장은 "소각산불 차단을 위한 영농부산물 파쇄 주간 운영으로 고령자와 취약계층의 영농부산물 파쇄 처리를 해소하고 불법소각 예방으로 산불방지 사전 차단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감천면은 의용소방대와 함께 산불 예방 지역주민 행동 요령, 산불 관련 과태료부과 기준 등 안내문 배부, 산불 발생 시 초동대처 향상을 위한 기계화 산불 진화훈련을 시행하는 등 산불방지 활동에 총력을 기하고 있다.

김광수 기자kgs5149@naver.com

성주군-쿠팡, 참외 온라인 유통 활성화 '한똥'

상생 협력체계 구축 업무협약
전국에 로켓·새벽배송 서비스
홍보 마케팅·판촉 활동 확대



성주군은 13일 국내 최대 온라인 쇼핑몰 쿠팡과 '성주참외 온라인 유통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 자리에는 정희용 국회의원, 김성우 군의회 의장을 비롯한 의원들과 지역 내 농협장 대표, 윤혜영 리테일 사업부 대표, 이성환 로켓프레시 그룹장 등 쿠팡 관계자 5명이 함께 했다. 이날 협약으로 두 기관은 상호 유기적인 상생 협력체계를 구축해 성주참외의 판로 확대와 온라인 유통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자원과 자료를 공유하는 등 긴밀한 협력을 도모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업무협약으로 성주군은 쿠팡 로켓프레시를 통해 산지의 신선

한 참외를 전국 소비자들에게 로켓배송·새벽배송으로 더욱 안정적으로 선보일 수 있게 됐다. 양측은 성주참외를 알리기 위한 홍보 마케팅 활동에도 힘을 모은다.

특히 쿠팡은 성주참외의 기획전 등을 통해 판촉 활동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병환 군수는 "온라인쇼핑 시장은 일상생활의 일부가 됐으며 신선식품의 비중도 점점 커지는 가운데 쿠팡과의

업무협약으로 고품질 성주참외 판로 확대가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군 주도의 판로 개척 및 홍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일호 기자hoya1515@daum.net

칠곡군, 치매 친화적 지역사회 만들기 '박차'

군보건소-근약사회 MOU 체결
치매안심약국 지정·치료 지원

칠곡군보건소는 지난 13일 칠곡군 약사회와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치매안심망 구축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하고 치매안심약국 지정에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네트워크를 구축해 치매 조기 발견 및 치료, 치매 인식 개선 등 치매 친화적 환경 조성에 협력하기로 했다. 치매안심약국이란 약사가 약국을 방문하는 지역주민의 이상징후를 관찰하고 치매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도록 돕는 약국이다. 또한 치매와 관련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치매약 복용지도와 실종 어르신 보호·신고 등 지역사회에서 치매 환자와 가족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치매안심가맹점의 역할을 하게 된다. 칠곡군은 오는 4월부터 희망하는 약국에게 신청서를 받아 읍·면별로 균등히 지정할 계획이다. 배국환 회장은 "고령화로 인해 치매 유병률이 높아지면서 약국이 지역주민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한다"며 "치매안심약국으로 지정된 약국은 책임감을 가지고 치매격정

없는 칠곡군 만들기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김재욱 군수는 "지역 내 많은 약국이 치매안심약국에 동참해 치매 어르신과 가족들이 안심하고 치매 예방과 치료를 받게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적극적인 협력으로 치매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송홍달 기자sona031700@naver.com

구미도시공사, 시니어 생활 환경 교육 운영

환경보호 가치관 정립 등 기여

구미도시공사 에코누리 탄소제로교육관에서 시니어 생활 환경 교육프로그램을 본격적으로 운영한다. (사)대한노인회 구미시지회와 협력

해 지난 12일 오후2리 노인정을 시작으로 지역 내 19개 노인정 시니어 350여명 대상이다. 시니어 생활 환경교육은 기후변화로 인한 환경훼손과 사회적 관심사인 탄소중립 실천을 위해 환경보전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정립하는 교육 프로그램이다. 또한 스마트폰을 활용한 금융 거래에 취약한 어르신을 대상으로 실제 피해사례와 신종 보이스피싱 범죄 예방법을 스마트하게 소통하는 이들의 재능기부로 어르신 눈높이에 맞는 사례 중심의 생활 안전 교육을 병행·운영한다. 박의분 기자ub0104@hanmail.net

소통·단합의 장 활짝

상주 외서면 생활개선회
연시총회·과제교육 실시
농업발전·여성 권익증진

상주시 외서면 생활개선회는 지난 13일 외서면 복지회관 대회의실에서 생활개선회원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 연시총회 및 과제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올해 사업추진계획 수립 및 활성화 방안 논의와 함께 당면 영농정보에 대한 교육 실시로 조직 결속력을 강화하고 회원간 활발한 정보 교환의 시간을 가졌다. 또한 과제교육으로 다육이 실내화분 꾸미기를 실시해 여성 농업인의 건강한 스트레스 해소 및 활력 있는 농촌사회 형성을 위한 단합의 시간을 보냈다. 이연정 회장은 "올 한 해도 우리 외서면 생활개선회가 더욱더 화합하고 단합해 지역 농업발전에 앞장서 나가겠다"며 "다양한 활동들을 통해 농촌 여성들의 권익향상에 힘쓰겠다"고 전했다. 정원용 면장은 "농촌여성 지도자로서 풍요로운 미래를 준비하고 건강한 농촌생활을 육성하기 위해 노력해주시는 생활개선회 회원분들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회원 상호간 유익한 정보는 공유하고 지역민 모두가 함께 건강한 삶을 살아가는 데 선도적인 역할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임창완 기자changwan12@naver.com

대구경북교육신문
대표 백재욱
경주시 초당길 5번길 3 (동천동, 2층)
☎ 010-7755-2933

(주)세영클린텍
대표 양창권
경주시 천북면 천강로 90
☎ 010-3539-9395

경상투데이
광고 문의
대표전화
☎054-748-0070
경주시 양정로235(동천동) 덕양빌딩 8층

구미소방서, 49년 만에 청사 이전... “더 나은 현장대응 서비스 제공”

254억 투입, 연면적 5638㎡ 규모 소방공무원 ‘근무환경 최우선’ 업무출동·휴식·민원에 최적화

구미소방서가 254억원을 들여 공단 동 1만400㎡ (3151평)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5638㎡ 규모로 신청사를 준공했다.

구미소방서 신청사 이전은 지난 1974년 준공 이후 49년 만이다.

지하 1층에는 전기실과 기계실이, 지상 1층에는 차고지와 현장대응단, 공단119안전센터, 119구조구급센터, 119이행복돌봄터가, 지상 2층에는 소방행정과, 예방안전과, 119재난대응과, 심신 안정실이, 지상 3층에는 소방안전체험관, 대회의실, 체력단련실 등으로 구성됐다.

신청사는 부지와 건물 활용성을 극대화, 일반차량과 소방출동 동선을 구분하고 내방객을 위한 넓은 주차공간 및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등 민원인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시공됐다.



특히 119이행복돌봄터는 구미시민 누구나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도록 긴급돌봄서비스를 제공, 소방안전체험관은 아이들에게 체험위주의 소방안전교육을 제공해 화재예방과 재난초기대응능력을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구미소방서는 지난 13일 명품 신청사로 보금자리를 이전하고 준공식을 가졌다.

준공식에는 이철우 도지사, 김장호 시장을 비롯 구자근·김영식 국회의원, 안주찬 시의회 의장, 임준형 구미소방서장, 박종섭 구미경찰서장, 윤재호 구미상공회의소 회장, 이승환 구미대총장, 이재호 대한노인회 구미시지회장, 허복·윤종호·백순창·황두영·김일수 도의원, 박교상·김춘남·김재우·김낙관·양진우 시의원, 박근오 경북소방본부장, 의용소방대, 소방행정자문단,

소방안전협의회, 소방공무원 등이 대거 참석했다.

이날 풍물놀이를 시작으로 임준형 구미소방서장의 오늘에 이르기까지 구미소방서 준공 경과보고 및 유공자 표창, 축사, 헌관식, 기념식수 등으로 진행됐다.

특히 구미소방서 신청사 이전에 김영식 국회의원, 허복·백순창 도의원, 안주찬 시의원, 윤창욱 전 도의원, 한

상일·정훈택 전 구미소방서장 등이 많은 도움을 준 것으로 알려졌다.

구미소방서 신청사는 소방공무원들의 근무환경을 최우선으로 업무출동, 휴식, 각종 민원에 최적화 된 소방서로 완공돼 화재다.

이철우 도지사는 “묵묵히 맡은 바에 최선을 다하는 소방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하고 구미소방서 준공을 진심으로 축하한다”며 “구미시민들과 많은 분들

의 도움으로 소방청사를 신축할 수 있었다. 이번 신청사 건립이 소방공무원의 재난 현장활동과 도민 안전확보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임준형 구미소방서장은 “신청사 준공을 계기로 앞으로 긴급출동 골든타임을 확보하는 등 보다 나은 현장대응 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익분 기자ub0104@hanmail.net

포항성모병원, 의료 불균형 해소 ‘앞장’

이강덕 포항시장은 14일 포항성모병원 암센터 및 외래동 증축 개관식에 참석해 관련 의료진들을 격려하고 포항성모병원의 새로운 도약을 축하했다.

포항성모병원은 지난 2년간의 암센터 및 외래동 증축 공사를 마무리하고 연면적 7778.34㎡에 지하 1층, 지상 3

층 규모의 암센터를 개관했다.

이날 개관식에 참석한 이 시장은 포항시민뿐만 아니라 경북도민들이 서울 등 먼 지역을 방문하지 않고 가까운 포항에서 암 조기진단부터 전문적인 항암 및 방사선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됐다며 감사의 말을 전했다.

이강덕 시장은 “포항성모병원 암센터가 암 치료 및 예방, 연구, 암 환자 관리 등을 통해 지역거점 의료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하며 지역 간 의료 불균형을 해소하는데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포항성모병원은 지난 1977년

암센터·외래동 증축 공사 마무리 본격 개관 이강덕 시장, 의료진 격려·새로운 도약 축하

6월 개원한 이래 지역민의 건강증진과 질병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우수한 의료진과 첨단 의료 장비를 갖추고 24시간 소아응급진료가 가능한 권역응급의료센터 등을 운영하고 있다.

신현기 기자hshin98@naver.com



의성 “증가하는 계절근로 수요 대비 철저”

필리핀 리바카우시와 관련 MOU

의성군은 지난 11일 필리핀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MOU) 체결을 위해 체결단이 리바카우시를 방문했다고 밝혔다.

체결단은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원활한 도입을 위해 필리핀 아를란주 아를란주지사, 리바카우시장, 시의원 면담을 통해 외국인 계절근로 사업에 대한 상호 교류와 협조 지원 등을 논의하고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또한 리바카우시 현지 농업 현장과 특산물 생산지를 견학하고 계절근로자 교육현장을 참관했다.

두 기관은 이번 협약 체결로 계절근

로자의 건강 상태와 양국 법률 규정 조건에 적합한 근로자를 선발 및 무단이탈 방지를 위한 사전교육을 이행하며 입국 후에는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근로자 근무 현장 점검 실시 등 지역 내 농가와 근로자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협조하기로 했다.

의성군은 지난 2019년도 캄보디아 노동직업훈련부, 2222년도 필리핀 시닐로안시에 이은 이번 협약 체결로 증가하는 계절근로 수요에 대비할 수 있게 됐다.

한편 의성군은 오는 21일에 올 첫 계절근로자가 입국하며 올해 총 449명의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을 추진 중이다. 정성수기자power5151@naver.com

백두대간수목원, 미나리과 종자 도감 눈길

우즈베키스탄과 함께 발간

국립백두대간수목원은 우즈베키스탄 과학아카데미 식물학연구소(Institute of Botany of the Academy of Sciences),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식물원(Tashkent Botanical Garden)과 함께 ‘우즈베키스탄 미나리과 종자 도감 Volume II’를 발간했다고 14일 밝혔다.

지난 2019년에 이어 두 번째로 발간된 우즈베키스탄 미나리과 종자 도감은 우즈베키스탄 현지에서 수집한 미나리과(산형과, Apiceae, Umbelliferae) 식물 42종을 선정해 이에 대한 식물체와 종자의 형태학적 정

보, 자생지 환경 조건, 종자 형태이미지, 식물체 이미지 등을 수록했다.

특히 세계자연보전연맹(IUCN) 적색 목록의 멸종위기종으로 평가된 2종(Helosciadium nodiflorum (L.) W.D.J. Koch, Oenanthe silaifolia M. Bieb.)도 포함돼 있어 그 의의가 크다.

우즈베키스탄 미나리과 종자 도감은 국내 공·사립수목원과 전국 공공도서관, 중앙아시아 4개국(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우즈베키스탄) 협력기관에 배포할 예정이며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누리집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정취영 기자jhy4430@hanmail.net

영천 화남 하나로마트, 이웃에 온정 나눔

따숨가게 참여... 매일 3만원 상당 생필품 취약계층에 지원

지난 13일 영천시 화남면은 영천농협 화남지점 하나로마트를 방문해 ‘따숨가게’ 현판을 전달했다.

따숨가게에 새로 참여하게 된 영천농협 화남지점 하나로마트는 매일 3만원 상당의 생필품을 지역 내 어려운 취약계층에 지원할 예정이다.

따숨가게는 생활밀착형 가게에서 기부한 무상 이용 쿠폰, 물품 등으로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돕는 나눔 실천 사업이며 지역 사회 내 다양한 민간자원 발굴 및 연계로 지역 중심의 나눔 네트

워크를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이다.

현재 화남면에는 자연솥불, 별빛순두부, 필마트, 카페229, 흙과 인, 정은 미용실 등 총 7개 따숨가게가 지역의 어려운 이웃을 위해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

양광환 면장은 “취약계층을 위해 따숨가게로 참여해 주신 영천농협 화남지점 김영일 지점장께 감사드리며 따숨쿠폰을 어려운 이웃들에게 잘 전달해 따뜻한 화남면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정식열 기자jsy92920@hanmail.net

더블에이치플랜

DHP

종합이벤트 기획 · 연출 · 진행

대표 현병희

Mobile : 010-3517-1105

E-mail : hbh0912@naver.com

경북 경주시 양정로 235(동천동) 덕양빌딩 7층



농협 경주교육원은 14일 2024년 농축협 신규직원 87명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CPR) 등 안전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안전교육은 교육생들의 안전의식 함양을 위해 경주소방서와 협조해 실시했다.

이번 교육에서는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방법, 심폐소생술(CPR), 자동심장충격기(AED) 사용법 등을 실습했다.

이보용 원장은 “이번 안전교육으로 농축협의 방문하는 고객에게 응급상황 발생 시 생존율을 높이는 데 기여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앞으로도 경주교육원은 교육생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안전교육을 실시해 소중한 생명을 지키는 ‘변화와 혁신을 통한 새로운 대한민국 농협’ 구현을 위해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박삼진 기자wba112@daum.net

고령 덕곡면, 관광객맞이 환경정화



고령군 덕곡면은 지난 13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면 직원과 노인·장애인 일자리사업 참여자 60여명이 모여 ‘2024년 대가야축제’를 위해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환경정화 활동을 시행했다.

특히 이번 환경정화 활동에는 리 별로 흠어져서 활동하고 있는 노인·장애인 일자리사업 참여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도로변 및 하천 제방 변에 있는 쓰레기를 집중적으로 수거하면서 덕곡면의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에 힘을 모았다.

이명희 덕곡면장은 “대가야축제를 맞이해 환경정화 활동에 참여해 주신 일자리 사업 참여자들에게 감사드리며 벚꽃 개화 시기와 맞물려 축제 기간에 덕곡면에 많은 관광객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되기에 오늘의 환경정화 활동으로 깨끗한 덕곡의 이미지를 제공할 수 있어 기쁘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환경정화 활동을 시행하겠다”라고 말했다.

김일호 기자hoyal515@daum.net

“나눔·봉사 앞장서 지역 발전에 힘 보탬 것”

문상연 신임 새마을회장 취임 단독후보 등록... 무투표 당선



김천시새마을회는 지난 13일 제11대 새마을회장으로 문상연 회장을 선출했다.

이날 김천시새마을회 임원, 읍·면·동 협의회와 부녀회 회장, 새마을문고 읍면동 분회장, 직장공장새마을협의회 부회장 등이 참석했으며 임기가 만료된 임영식 새마을회장의 뒤를 이을 신임 김천시새마을회장을 선출했다.

회장 선거에는 문상연 현 민주평화 통일자문회의 김천시협의회 자문위원이 단독 후보로 등록, 무투표 당선으로 제11대 김천시새마을회 회장으로 선출됐으며 오는 2027년까지 3년간 김천시새마을회를 이끌어갈 예정이다.

문상연 신임 회장은 “국민운동 3대 단체 중 하나인 김천시새마을회의 회

장직을 맡은 것에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 새마을 가족 여러분과 함께 나눔과 봉사에 앞장서 지역사회와 새마을운동의 발전에 힘 보태겠다”라고 당선 인사를 했다.

함께 한 새마을 회원들은 신임 회장 취임을 축하하면서 올해에도 근면, 자조, 협동의 새마을운동 정신을 근간으로 함께 사는 따뜻한 세상, 지속 가능한 지구 환경 보전 등 새마을

운동의 가치를 높여 무엇보다 우리 김천시민이 모두 행복하고 살기 좋은 지역으로 만들기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금광수 기자kgs5149@naver.com

구미 양포동, 금오공대 전입신고 홍보·독려

구미 양포동이 금오공대 기숙사 앞 광장에서 ‘찾아가는 현장민원실’ 운영을 시작했다.

양포동은 새 학기 개강에 맞춰 금오공대와 협업을 통해 오는 22일까지 8일간 운영하며 청년 월세, 전입 지원금, 청년 취업프로그램 등 구미시의 청년 지원 사업을 홍보하고 학기 초 개강에 따른 학생들이 전입신고나 지원 사업 신청을 위해 직접 주민센터를 방문하

거나 전화로 문의해야 하는 어려움을 덜어 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임춘옥 동장은 “지역 내 7500여명의 금오공대 학생들의 꿈과 희망을 응원하고 함께 키워가는 양포동이 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한편 시는 50만 구미 인구 달성을 위한 ‘구미애 주소갯기 운동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

박익은 기자ub0104@hanmail.net



칠곡 ‘희망수납기동대’ 첫 대외활동 스타트



칠곡군은 지난 12일 주민주도 이웃 돌봄체계 구축을 위한 맞춤형 봉사단인 ‘희망수납기동대’가 첫 활동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활동은 돌봄 취약가정에 정리수납과 관련된 재능기부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군민을 모집해 희망수

납기동대로 17명을 위촉했으며 지난 2월까지 총 8회에 걸쳐 정리수납 전문 과정 교육을 수료 후 진행된 첫 활동으로 약목면 소재 돌봄환경이 열악한 저소득 모자가구를 대상으로 진행했다.

송홍달 기자song031700@naver.com

봉화 법전면, 경로당 운영·보조금 교육 시행



봉화군 법전면은 지난 7일 지역 내 27개 경로당 회장과 총무를 대상으로 ‘2024년 경로당 운영 및 보조금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경로당 운영을 위한 보조금 지출 기준 및 정산 방법과 어르신들이 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에 대해 교육하고 효율적인 경로당 운영을

위해 올해부터 시행하는 군 지역봉사지도원 제도도 안내했다.

석기원 분회장은 “여러 복지서비스를 안내해주고 교육을 통해 경로당 운영 및 보조금 사용에 대한 어려움을 해소시켜 준 법전면에 감사를 표한다”라고 말했다.

정취영 기자jhy4430@hanmail.net

산양면 남의소대, 산불 예방 캠페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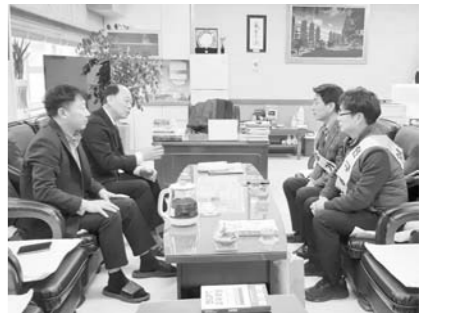


문경시 산양면 남의소대는 지난 13일 대원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봄철 산불 예방 현수막 달기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산불 예방 캠페인은 본격적인 영농 준비 기간에 앞서 산림 인접 지역 소각행위로 인한 산불 예방 및 최근 전국적인 대형 산불 발생으로 인해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한 것으로서 영농부산물 소각행위 금지, 입산 시 인화물질 소지 금지 등 산불 예방 홍보활동을 실시했다.

홍중철 면장은 “산불은 무엇보다도 예방이 중요하다”라며 “면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킨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산불화재 예방에 적극적인 관심과 주의를 기울여 주시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김세현 기자hyun0085@daum.net

계림동행복센터, 인구증가시책 홍보



상주시 계림동행정복지센터는 지난 12일 우석여자고등학교와 상산전자고등학교를 방문해 상주시의 인구증가시책을 홍보하고 인구감소라는 지역의 현안을 함께 고민하고 해결책을 찾아보는 자리를 마련했다. 계림동 직원들은 우석여고와 상산전자고등학교에서 신입생들과 신규 교직원들의 전입을 독려하기 위해 전입지원금, 입학준비금 그리고 결혼장려금 등의 다양한 시책들을 소개하고 안내했다. 또한 타지역 학생들의 상주시 유입을 유도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방안들을 학교측과 심도있게 논의했다.

채인기 동장은 “학교의 신입생 유치가 인구정책의 기본적인 발판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응원하고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임정환 기자changwan12@naver.com

문경 모든 여행을 담다

전통과 현대, 자연과 문명이 공존하는 생생한 역사와 문화의 보고, 문경 다양한 체험과 볼거리가 가득하고 1년 내내 색다른 재미를 더하는 축제까지! 문경에 머무는 모든 순간이 추억이 됩니다.

공정의 힘! **Yes 문경**

대구예술발전소 첫 기획전 ‘전지적 감정 시점’ 웰메이드 뮤지컬 ‘마리 퀴리’ 안동 상륙

22일~5월 12일 실험적 프로젝트 언플랜·도파민 등 유니크한 주제 작가 17명의 다채로운 작품 선봬

대구문화예술진흥원은 2024년도 대구 예술발전소 첫 번째 기획전시 ‘전지적 감정 시점’ 오는 오는 22일부터 5월 12일 까지 대구예술발전소에서 개최한다.

대구예술발전소 ‘실험적 프로젝트’는 기존 총괄 감독제 운영시스템을 개선해 시즌별 문화예술기획팀을 선별하고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첫 선을 보였다.

이러 올해에도 펼쳐지는 실험적 프로젝트를 위해 대구예술발전소는 지난 1월부터 2월까지 3개 팀의 기획자를 선정했다. 선정된 기획자들의 프로젝트는 연중 펼쳐질 예정이다. 그에 앞서 대구예술발전소 자체기획 프로젝트 ‘전지적 감정 시점’이 2024 실험적 프로젝트의 첫 번째 문을 연다.

이번 프로젝트는 인간이 느끼는 감정이나 기분이 예술가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 실험적인 측면에서 접근해 예술가의 여러 감정을 낫선 듯 새롭게 느껴볼 수 있는 경험을 선사한다.

전시는 인간의 감정 메신저인 신경전달물질 중 대표적인 물질·행복을 담당하는 ‘엔도르핀’, 쾌락을 담당하는 ‘도파민’, 불안을 야기하는 ‘노르에피네프린’, 스트레스를 담당하는 ‘코티



졸’, 안정을 담당하는 ‘세로토닌’까지 5개의 구역으로 나눠져 각기 다른 색션의 작품을 순서대로 감상할 수 있다. 프로젝트에 참여한 고아빈, 김덕용, 김민주, 김원, 박보영, 배수관, 송인, 오이, 유용선, 이동욱, 이사라, 이상현, 장영원, 최미향, 최한진, 최혜민, 황윤하 등 17명의 작가는 서로 다른 감정에서 발현된 다채로운 형태의 작품을 보여줄 예정이다. 행복(엔도르핀)을 테마로 하는 1전 시실의 이사라, 최한진, 황윤하의 회화·조각 작품을 시작으로 2전시실에 들어서면 쾌락(도파민), 불안(노르에피네프린), 스트레스(코티졸), 안정(세로토닌) 순으로 각 테마별 작품을 볼 수 있다.



쾌락의 공간에서는 고아빈, 김원, 유용선, 최혜민의 설치·회화 작품을, 이 어지는 불안의 공간에서는 박보영, 송인, 최미향의 사진·회화·영상작품을 감상할 수 있다. 스트레스를 주제로 한 오이, 이동욱, 장영원의 사진·영상작품과 마지막 출구에 다다르면 안정의 공간으로 김덕용, 김민주, 배수관의 회화·설치·조각 작품을 감상할 수 있다. 또한 이번 프로젝트는 4층 야외 테라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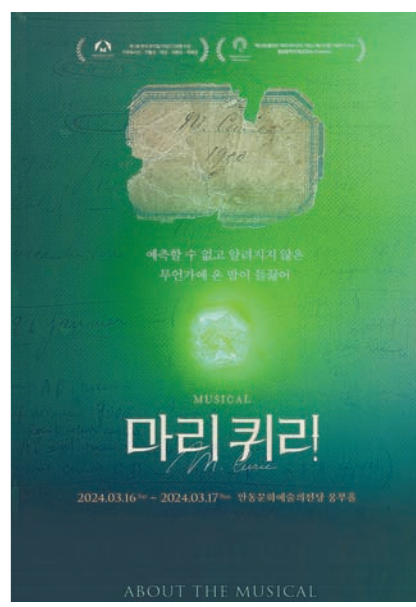
에도 작품이 설치되는데 2전시실 출구 공간의 ‘안정’ 테마가 이어져 배수관, 이상현의 조각 작품을 만날 수 있다. 대구예술발전소 전시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4-10월 하절기는 오후 7시)까지 관람 가능하다. 단 단체관람은 대구예술발전소·수창청춘맨손 누리집(daeguartfactory.kr) 참고해 예약 후 관람할 수 있다. 강두용기자kwondrumkakao@daum.net

16·17일 안동문화예전당 옹부홀 폴란드·영국 등 해외 ‘큰 호응’

뮤지컬 ‘마리 퀴리’는 지난해 예술경영지원센터의 ‘공연유통협력 지원사업’에 선정, 2년에 걸쳐 진행되는 공연으로 예술경영지원센터 주최, 라이브(주)와 안동문화예술포럼 주관,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해 오는 16일, 17일 이틀간 오후 2시, 6시 30분에 안동문화예술포럼에서 진행된다.

여성 최초 노벨 화학상 수상자인 마리 퀴리의 삶을 기반으로 신물질 라듐을 발견하고 라듐의 양면성에 대해 알게 되며 마리 퀴리가 겪는 일들을 풀어낸 뮤지컬이다. 마리 퀴리의 삶을 새롭게 해석해 신선한 스토리 전개를 보여주는 웰메이드 뮤지컬이다. 영국 웨스트엔드의 런던 채링 크로스 시어터에서 오는 6월 1일부터 7월 28일까지 ‘마리 퀴리’ 영어판을 초연하는 패기를 앞두고 이번 공연을 통해 국내에서 먼저 만날 수 있다.

지난 2020년 초연 이후 수많은 상을 휩쓸며 폴란드, 영국, 일본, 중국 등 해외에서도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3년 만에 국내 무대로 다시 돌아와 열렬한 호응을 얻은 마리 퀴리의 안동공연에서는



‘마리 퀴리’ 역에 뮤지컬 배우 김소현, 이정화를 비롯해 강혜인, 효은, 박영수, 김지철, 김찬호, 양승리 등 명품 출연진이 대거 참여해 최상의 뮤지컬을 만나볼 수 있다. 안동문화예술포럼 기획공연 ‘뮤지컬 마리 퀴리’는 VIP석 9만9000원, R석 8만8000원, S석 6만6000원으로 초등학교 이상 관람이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전화(054-840-3600)로 문의하거나 전당 누리집(www.andong.go.kr/arts)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오명수기자homs727@nate.com

대구공연예술연습공간 정기대관 26일~4월 4일 이메일 신청·접수

대구문화예술진흥원 대구공연예술 연습공간은 2024년 중반기(5-8월) 정기대관 신청을 받는다.

대구규모 공연 연습이 가능한 대연습실 1개, 연극·무용·음악 등 다장르 연습이 가능한 중연습실 3개, 소연습실 1개 그리고 실제 공연장과 같은 실감 나는 환경에서 공연 연습 및 제작발표(리허설, 쇼케이스 등)가 가능한 ‘대명홀’을 이용할 수 있다.

신청은 오는 26일부터 4월 4일 오후 6시까지 누구나 가능하며 진흥원 누리집과 대구공연예술연습공간 누리집 공지사항에서 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 후 이메일(dgperform@dgfc.or.kr)로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진흥원 및 대구공연예술연습공간 누리집을 참고하거나 대구공연예술연습공간으로 문의하면 된다. 강두용기자kwondrumkakao@daum.net

3D 디지털 드로잉, 세상 밖으로

영천 16기 단기 입주작가 결과전 20~31일 영천예술창작스튜디오

영천시는 올해 ‘16기 단기 입주 작가 결과전’을 오는 20일부터 31일까지 영천예술창작스튜디오 전시실에서 개최한다.

이번 전시에 참여한 전영현 작가는 판화와 실험영화를 전공했으며 평소 인체에 관심을 두고 초현실적인 3D 애니메이션을 만들거나 실험영화와 비디오 아트 작업을 주로 하고 있다.

특히 3D 애니메이션 속 장면들을 오브제(objet), 예술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물건이나 그 한 부분을 본래의 일상적인 용도에서 떼 내어 보는 사람에게 잠재된 욕망이나 환상을 불러일으키게 하는 상징적 기능의 물체)로 만들어 기묘한 꿈같은 애니메이션 세계를 현실

로 끄집어낸 뿐만 아니라 인체에 관한 상상력을 담은 디지털 드로잉 작업을 많이 하고 있다.

이번 전시에서는 ‘부정확한 인체(The imprecise body)’라는 제목으로 3개월이라는 짧은 입주 기간에 제작한 4개의 3D 애니메이션과 오브제 작품을 전시하고 영천에서의 일상생활에 영감을 받아 제작한 ‘인체 디지털 드로잉 시리즈’도 선보일 예정이다.

또한 ‘작가의 이야기: 전시 길잡이’라는 이름으로 전시 연계프로그램을 진행해 작가의 작품을 현장에서 직접 볼 수 있어 작품을 이해하는 데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영현 작가는 “인위적인 애니메이션 속 등장인물들과 생명체의 생명력을 상징하는 것들과의 대비를 나타내고 싶었다”라고 소감을 피력했다. 최기문 시장은 “봄의 시작을 알리는



3월에 가족 혹은 연인과 함께 전시장 나들이로 작가의 멋진 작품을 관람하고 영천의 명소를 둘러보는 좋은 시간 가지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관람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무료 관람)이며 자세한 사항은 영천예술창작스튜디오(054-330-6062)로 문의하면 된다. 정식열기자jst92020@hanmail.net

‘Imagine-달성2000’ 공모... 내달 5일까지

군민 대상 문화예술활동비 총 1억4000만원 지원

달성문화재단 달성문화도시센터가 오는 4월 5일까지 시민과 문화 예술 단체들의 문화활동 지원을 위한 시민주도형 문화활동 지원사업 ‘Imagine-달성2000’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달성군은 제4차 법정문화도시 공모에 선정돼 올해 2년차 문화도시 사업을 이어오고 있다. 법정문화도시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이번 공모사업은 오는 5월부터 10월까지 지역 문화자원을 활용, 지역 현안을 문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시민과 예술가들이 직접 계획하고 실행하는 문화활동을 지원한다. 지난해에는 시민그룹 13팀, 예술가 그룹 22팀으로 총 35팀이 활동했으며 전체 사업횟수 210회, 참여자 1845명, 수혜자 6705명의 성과를 냈다.

이에 따라 군은 올해도 사업을 공모하며 공모유형은 시민, 예술가, 주체형 그룹으로 총 3가지가 있으며 해당하는 활동을 구분해 지원한다. 시민 및 예술가 그룹은 △공연활동 △전시활동 △문화관광 △전통문화 △역사문화 △발간출판 △문화교육 △체험활동 유형으로 지원할 수 있다.

특히 주제형 그룹은 올해 신설된 공모유형으로 총 4가지의 주제가 있으며 △ ‘아이 키우기 좋은 달성’ △ ‘청년의 꿈을 달성!’ △ ‘함께하는 다문화 달성’ △ ‘세대공감 달성!’으로 구성됐다.

공모 자격은 군민 한정으로 지역에서 활동 가능한 3인 이상으로 구성된 시민 그룹, 공고일 기준 대구시에 주소록 두고 달성군 지역을 기반으로 활동 가능한 문화·예술 단체인 예술가 그룹, 주체형 그룹으로 구분된다. 활동 지원비는 총 1억4000만원으로 시민 그룹은 최대 100만원, 예술가 그룹은 최대 300만원, 주체형 그룹은 중장기 프로젝트형으로 최대 1000만원 규모의 활동비를 지원한다. 선정 및 지원 규모는 전문가 심사를 거쳐 결정된다. 오는 18일에 개최 예정인 설명회를 참석하면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있다.

신청 접수는 센터 방문 및 이메일로 할 수 있으며 서식 등 자세한 내용은 달성문화재단 누리집, 센터 블로그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기타 문의는 센터(053-668-4262)로 문의하면 된다. 장종현기자gst3000@naver.com

어린이보호구역
SCHOOL ZONE

어린이 보호

주정차금지

역사를 품은 도시
미래를 맞는 경주

2021년 10월 21일부터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른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전면금지 시행

휴일·공휴일 상관없이 매일 오전 8시~오후 8시
1분만 정차해도 과태료 12만원(승용차 기준)

경상투데이는 불법주정차 없는 안전도시 경주 만들기에 동참합니다

칼럼

ESG 정쟁과 SEC 친환경 공시

김화진
서울대학교 법학대학원 교수



2024년 3월 6일 미국 증권관리위원회(SEC)는 3대 2 의결로 기후변화 관련 공시 규정을 채택했다.

당초의 시도보다는 다소 약화된 내용이지만 향후 미국의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기업들은 기후변화와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공시해야 한다.

KT, 포스코홀딩스, KB금융그룹 등 국내의 10개 기업이 미국 증권시장에 상장돼 있는데 이 회사들은 새 규정에 따른 공시의무를 진다.

새 규정은 관보 게재 후 60일 후부터 단계적으로 발효된다. 회사 규모에 따른 차등도 있다.

지난 2022년 3월에 시작해서 무려 2년이 걸려 완성된 것이다.

그동안 SEC에는 2만2500건의 의견이 접수됐다고 한다. SEC 역사상 최다 기록이다. 그 결과 초안에 들어있던 여러 규정이 삭제되거나 적용 범위가 축소됐다.

향후 재계와 환경단체 양쪽으로부터 소송도 제기될 것으로 예상된다. ESG에 회의적인 각 주 정부도 소송을 제기할 것이다.

웨스트버지니아주 법무장관은 10개 주가 연합해서 새 공시 규정에 대한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이번에 채택된 규정은 상장기업의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상세 정보 공개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금도 그와 관련된 공시가 이뤄지고는 있지만 기업별로 천차만별이고 일관성도 결여돼 있다는 문제가 있다. 투자자 보호에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새 규정의 채택에 반대한 2인의 SEC 위원은 새 규정이 SEC의 권한 범위 밖에 있다는 점과 새 규정의 준수에 상장기업들이 과도한 비용을 지출해야 될 것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원안에는 기업들이 공급망 관련 간접적으로 발생시키는 온실가스 배출도 공시하라는 규정이 있었는데 최종안에서는 사라진 이유다.

SEC의 이번 규정은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다. 캘리포니아주는 SEC의 새 규정보다 더 엄격한 규제를 이미 도입한 바 있고 EU와 영국도 유사한 규제를 도입했다.

그 외 상당수 대기업들이 원료나 부품, 상품 공급자들에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정보 공시를 거래 조건에 이미 포함시키고 있다.

그러나 미국 증시에 상장된 국내 10개 기업은 물론이고 미국 기업의 공급망에 포함돼 있는 국내 다수 기업들은 이번 SEC의 규정에 새로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게 된다.

ESG가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하지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흘렀다. 학술적, 실무적 논의가 실제 법규로 연결되는 데는 항상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는데 ESG의 경우 그동안 동력을 많이 잃은 상태.

ESG의 대부 블랙록의 래리 핑크도 ESG 개념이 문화투쟁의 도구가 됐다며 더 이상 쓰지 않겠다고 한다.

그러나 초창기에 준비되기 시작한 규제는 이제야 그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여기서 혼란이 발생할 것이다.

SEC의 새 규정이 시장에서 호응을 받을지는 지켜볼 일이다. ESG의 G에 대해서는 누구도 이의가 없다. 가장 논란이 많은 문제는 S이고 다음이 E다.

워런 버핏은 "아무도 수술실에 들어갔을 때 실력있는 의사를 보다는 다양한 의사들이 모여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하지 않는다"고 했다.

DEI를 핵심으로 하는 S가 영리기업의 운영 목적에 부합하는지는 지속적인 논쟁거리다.

E도 사회 전반의 규칙으로서 아무도 이의가 없지만 영리기업에 적용하는 문제는 다르다. 이번 SEC의 규정 제정으로 논란은 새 단계에 접어든다.

뉴욕증권거래소에만 45개국 약 530개 외국기업들이 상장돼 있다.

이들 기업에는 미국법과 규정이 모국법보다 덜 무섭지 않다. 이들을 통해 미국의 규제가 그 45개국의 법률에 전이되는 효과도 예상된다.

이제 우리 금융 당국과 기업들은 우선 SEC가 이번에 내놓은 850페이지가 넘고 324개 각주가 달린 새 규정을 공부해야 한다. 뉴스1

독자기고

영화 '버스44'의 교훈

김현철
경주경찰서 청문감사인권관실



중국의 단편영화 '버스44'는 실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졌고 내용은 다소 충격적이다.

어느 여성 버스기사가 운행 중 강도로 돌변한 승객 2명에게 여자로서 수치스러운 봉변을 당했다. 당시 버스 내 대다수 승객들은 외면했고

어떤 중년의 남성이 이를 말리다 심하게 다치게 된다.

잠시 후 기사는 자신을 도왔던 중년남성을 강제로 버스에서 내리게 한다. 도움을 준 중년남성은 이 상황이 기가 막혀 항의를 하지만 기사는 중년남성이 내릴 때 까지 출발하지 않겠다고 하자 강도의 악행을 방관했던 승객들이 나서 중년남성을 버스에서 끌어 내렸다.

잠시 후 버스는 출발했고 기사는 커브길에서 가속해 그대로 낭떠러지로 추락 모두 사망한다. 기사는 유일하게 자신을 도와준 중년남성만을 살리기 위해 그런 행동을 한 것이다.

영화는 10분 남짓이지만 실화를 바탕으로 했

고 베니스영화제에 출품돼 특별상을 수상하는 등 당시 상당한 반향을 일으켰다.

이 영화는 "불의에 맞서 사회 구성원 모두의 책임과 협조가 필요하다는 것을 표현하고자 했다"는 감독의 말처럼 현실 속 경찰조직이란 '버스' 안에서 우리도 누군가의 갑질로 고통을 겪는 주변의 동료를 애써 외면하고 갑질이라는 불의를 방관하며 침묵하는 사이 나와 그 동료는 낭떠러지로 향하고 있을지 모른다.

개인주의가 만연하는 이 사회속에서 오늘날 나는 '버스44'의 기사를 도와주는 중년남성처럼 경찰의 미래를 위해 침묵의 방조자가 되지 말자고 다시 한번 다짐해 본다.

사설

지난해보다 문 닫는 건설사 더 늘었다

3개월 만에 6곳의 건설사가 쓰러졌다.

특히 폐업 건설사는 지난해보다 빠른 속도로 늘고 있다. 부동산 경기 침체 장기화, 시공 원가 상승 등의 영향으로 부도 기업은 더 늘 수 있다고 분석된다.

지난 12일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11일 기준 올해 1~3월 부도난 건설업체(금융결제원이 공시하는 당좌거래 정지 건설업체로 당좌거래정지 당시 폐업 또는 등록 말소된 업체 제외)는 총 6곳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3곳) 대비 2배 증가한 것으로 지난 2020년(6곳) 이후 최대치다.

특히 부도 업체는 모두 전문건설사다.

지역별로 △경기 1곳 △광주 1곳 △울산 1곳 △경북 1곳 △경남 1곳 △제주 1곳 등으로 나타났다. 건설사 폐업은 늘었다. 올해 1~2월 누적 종합건설사 폐업 신고는 68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51건)보다 33.33% 증가했다.

같은 기간 전문건설사 폐업 신고는 377건에서 426건으로 늘었다.

신규 등록은 면허에 따라 다른 양상이다. 올해 1~2월 누적 종합건설사 신규 등록은 전년 같은 기간(241건) 대비 78.42% 줄어든 52건으로 나타났다.

반면 전문건설사 신규 등록은 지난해 1~2월 누적 783건에서 올해 1~2월 누적 897건으로 증가했다.

주택산업연구원은 "주택사업 경기가 침체한 가운데 사업자가 느끼는 원자재 가격 부담이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며 "유동성 문제, 고금리 등 악화된 자금 시장 여건이 지속되는 가운데 사업자가 느끼는 자금 시장 불안정성에 따른 위기감이 악화했다"고 말했다.

실제 주택사업 경기는 악화할 것으로 전망됐다.

주택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이달 전국 주택사업경기전망지수는 전월대비 2.7p(포인트) 하락한 64.0p로 집계됐다. 특히 대구(80.9p→62.5p)가 가장 큰 하락 폭을 보였다. 주택사업경기전망지수는 주택 사업자가 경기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지표다.

'0-85 미만'은 하강 국면으로, '85-115 미만'은 보합 국면으로 '115-200 미만'은 상승 국면으로 각각 해석한다.

이달 전국 자체수급지수는 전월보다 6.4p 하락한 81.6p로 자금조달지수는 전월 대비 7.7p 떨어진 58.4p로 각각 나타났다. 업계에서는 부동산 시장 회복이 더딘 상황에서 원자재값 인상 등 악재만 겹친다고 하소연 하고 있다.

한 건설업체 관계자는 "부동산 경기 침체가 장기화하고 있는데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요인은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일부 대형 건설사는 해외 수주로 버티고 있지만 국내 수주만으로 연명하는 중소형 건설사는 버티는 게 쉽지 않다"며 "대외적으로 알려진(건설업계) 것보다 건설업계 상황이 더 좋지 않을 수 있다"고 했다.

정부는 건설업계 회복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연착륙 지원을 적극 나설 방침이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아 미분양이 증가하는 등 주택 분야에서 애로사항이 크게 발생하고 있다"며 "글로벌 현상이긴 하지만 건설업 부문에서 시공 단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다"고 밝혔다.

그는 "최근값부터 시작해서 5년 동안 30% 이상 상승한 것으로 파악되는데 건설사들의 체감은 더 클 듯하다"며 "여전히 규제가 많이 남아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를 삼중고로 표현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현실을 직시하고 건설 활력 회복과 PF 연착륙을 위한 지원 방안을 관계 부처와 함께 적극 검토해야 한다.

※ 외부필자의 글은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경상투데이		창간 2014년 3월 31일 등록번호 경북.가00032 http://www.gyeongstoday.com	
발행·편집인 이승협		편집국장 박성택	
본사 대표전화 (054)748-0070	사회 2부 <구내>1005	판매·광고 (054)748-0070	
편집부 <구내>1004	문체부 <구내>1007	경영·관리국 <구내>1006	
사회부 <구내>1006	정경부 <구내>1008	F A X (054)748-3663	
구독·광고·계보 ☎054-748-0070		E-mail : gst3000@naver.com	
·경주시양정로 25(동천동) 덕양빌딩 8층 구독료 월정 10000원/1부당 500원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남의 말을 좋게 합시다'

칭찬이 씨앗 되어 마음에 예쁜 꽃을 피웁니다



경상투데이 칭찬 캠페인

2025 APEC 정상회의의

경주

2025

A P

가장 한국적인
도시 경주에서

과거의 역사를
아우르고



현재의
경험을 나누고

미래의 꿈을
실현합니다

